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최미진, 이유진	
다음주 독서: 주민수, 최운정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1 차헌금: \$ 250
이번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리체, 전은숙 글라라	2 차헌금: \$131
다음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김태진 하상 바오로	매일미사: \$50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교 무 금: \$10
홍유리 올리아	-----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합 계: \$ 441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12 월 2, 16, 30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12 월 10, 23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택 (12 월 9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즈카르야 사제의 외아들로 태어나 당연히 유다 전통에 따라 사제직을 계승하고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닦으려고 광야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의 손가락은 늘 예수님을 가리켰고(요한 1,38 참조),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라고 하며 구원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명성과 신념만을 위해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가난과 금욕적인 삶을 내세우며 명성을 누리고 사람들의 스승 노릇이나 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구원 역사 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 투신한 사람들을 위해 삶의 본모기를 보여 줍니다. 진정한 투신은 요한처럼 광야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는 추위와 가난과 온갖 유혹을 건디는 삶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 복음적 가치를 선택한 삶을 말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2011 년 12 월 3 일

[대림 제 2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0, 1-5, 9-11

<제 2 독서> 베드로 2 서 3, 8-14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복음, 1, 1-8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시작: 93 봉헌: 332 성체: 344 파견: 91



제 30 회 인권주일 담화문

정의와 사랑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
- '사회 교리 주간' 제정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과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11 년 가을 총회에서, 올해부터 해마다 인권주일인 대림 제 2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사회 교리 주간을 제정한 것은, 신자들이 사회 교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교리'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1891 년에 반포된 교황 레오 13 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 100 여 년 동안, 교회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개해 왔습니다. 교황청은 이런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난 2004 년에 「간추린 사회 교리 (Th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성찰, 판단, 행동의 지침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사실 사회 교리는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에 대해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십계명'에서 사회 교리의 근본 내용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지킬 계명 분야에서 사회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신자들이 사회 교리라는 용어도 생소하게 여기고, 사회 교리에서 가르치는 기본 원리들, 즉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마저도 도구화하고, 불의와 부정으로 사회적 약자가 큰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회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사회 교리는 이런 우리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과 도덕적 가치를 일깨워 주고, 정의와 공동선을 통해 참된 인간의 발전과 완성을 지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사회 교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신앙인의 사명에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도구이기에, 신자라면 누구나 깊이 배우고 내면화하여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공피임,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배아연구를 반대해 왔고,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정의에 반하는 4 대강 개발, 핵발전소 정책, 그리고 환경과 평화와 관련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교회는 사회 교리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들이 지닌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측면들, 특히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앞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가치를 파괴하는 오류들을 지적해 온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법 제 747 조에서는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 공지사항

- 현재 주소록을 업데이트 중입니다. 성당홈페이지에 올려진 주소록을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거나 아시는 분은 김주현 안토니오(jhkim73@gmail.com)에 연락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신부님 강론을 시범적으로 페이스북 성당 그룹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과 음성 모두를 제공할지, 음성만 제공할 지는 추후 호응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에 이어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돕는 것이 첫째가는 사명이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인 사회를 복음화해야 하고, "사회와사회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교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 69 항). 교황 바오로 6 세는 "복음화 되어야 할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존재"이며, "부정과 싸우고 정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구원의 계획과 창조 계획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의와 평화로 참된 인간 발전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31 항). 사회 교리는 교회가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81 항).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황 베네딕토 16 세께서는 "새 복음화"를 2012 년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로 정하시고, 현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새 복음화" 노력은 바로 사회 교리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제 사회 교리 주간 제정을 계기로 각 교구에서는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교리 학교' 등을 통해 사회 교리 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본당에서 사목자들이 강론과 예비자 교리와 견진 교리 등을 통해 사회 교리를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현실 안에서 사회와 정치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현세 질서를 쇄신할 예언적 수행의 사명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 교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교리의 정신에 따라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2011 년 12 월 4 일 인권주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